임실군, 국화 생산 사전 준비 돌입

2025 임실 방문의 해 맞아 임실치즈테마파크·옥정호 붕어섬 적시 전시 만전

임실군이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앞두고, 관광 효자인 국화 생산을 위한 사전 준비에 돌입했다.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옥정호 붕어섬 국화 전시를 11월 중순으로 종료하고 2025년에 전시할 국화 재배를 준비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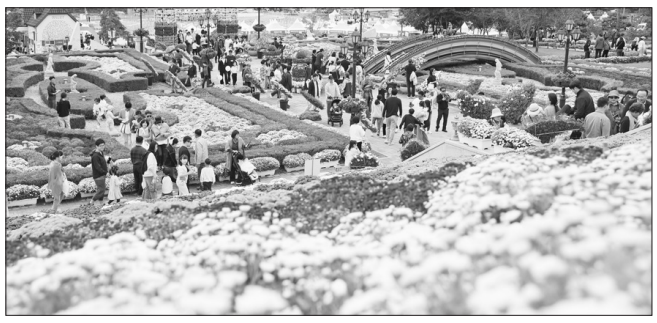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국화를 생산할 계획인 가운데 분화국 42,700개는(사각 20,000, 원형 22,700) 민간에 위탁 생산한다.

다만 젖소와 산양, 천사의 날개 등 중형 조형물 10개와 물망울, 느낌표, 초승달 등 소형 조형물 390개는 지역 농업실증시험포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이상 고온으로 국화의 개화가 지연된 만큼 고온하에서도 비교적 개화가 안정적이었던 품종을 선발하여 집중 배치할 방침이다.

꽃망울 발달과 성숙기에 더욱 세밀한 양수분 관리로 축제 기간에 적기 개화할 수 있도록 모든 기술력을 총동원하는 등 국화 생산에 만전을 기한다.

분화국은 노랑, 분홍, 빨강, 보라, 흰색, 주황, 연분홍 등 7가지 색상으로 원형 및 사각 화분을 생산할 계획이다. 특히 2~3가지 색상을 혼합한 사각 화분의 비율을 50%까지 늘려 생산하여 올해보다 더욱 화려하고 풍성한 경관을 연출할 계획이다.



임실군이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앞두고, 관광 효자인 국화 생산을 위한 사전 준비에 돌입했다.사진은 임실치즈테마파크 국화 모습.

임실군 농업기술센터가 일찌감치 정성을 들여 키워낸 국화는 지난 10월 3일부터 6일까지 개최된 임실N치즈축제에 역대 최고치인 58만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또한 옥정호 붕어섬에도 올해 45만여명의 관광객이 몰린 가운데 가을꽃인 국화가 멋지게 전시된 이후 주말과 평일을 막론하고 평균 7~8천여명이 찾으며,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일등공신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축제가 끝난 이후에도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옥정호 붕어섬에 11월 중순까지 전시된 아름다운 국화 경관은 전국적인 입소문을 타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임실군을 방문, 아름다운 가을날의 추억을 선사했다.

심 민 군수는 "2025년은 임실 방문의 해로 10월에 개최되는 임실N치즈축제장인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전북특별자치도의 보물섬인 옥정호 붕어섬에 전시하는 국화를 적시에 전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2025년은 '이제임실'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임실을 찾는 천만 관광을 실현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이사회 개최

결산 추경 예산편성·안건 등 심의

남원시 춘향장학재단(이사장 최경식 남원시장)은 3일 시청 회의실에서 남원의 미래인재 양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80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임원 선출과 2024 회계연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 예산편성 및 2025년도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세입·세출 예산편성 등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최근 신설된 예체능 특기생 육성을 위한 '남원의 별'과 으뜸 인재 참여 학생 중에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을 위한 '으뜸 인재' 특별장학금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최경식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역 인재 육성의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금동, 따뜻한 복지 실현 '최선'

남원시 금동행정복지센터(동장 노환순)가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 내 모든 세대가 겪는 어려움과 문제를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동에서는 보건, 복지, 생활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일 한 가구 이상을 방문하는 '1일 1가구 소통행정'을 지속 실천, 올 한해 총 557세대를 방문해 시정 소식 홍보, 주거환경 개선, 안부 살핌 서비스 연계,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또한, 금동행정복지센터는 △찾아가는 이불 세탁 서비스 △뚝딱뚝딱 공구 대여함 서비스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아름다운 배려창구 운영 △사랑의 밑반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금동행정복지센터는 한파에 대비하는 복지위기가구 발굴, 희망나눔캠페인의 적극 추진, 방한용품 연계 지원 등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노환순 금동 동장은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올해는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따뜻한 정을 전하는 등 동 구석구석에 희망이 스며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천연기념물 따오기, 운봉에 날아들다! 남원시 운봉읍(읍장 이은주)의 백두대간 인근 산덕리 삼산마을에 천연기념물 제198호 따오기가 나타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광주여대 '맞손'

도농교류 활성화 위한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

순창군과 광주여자대학교는 3일 광주여자대학교에서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이선재 광주여자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지역과 대학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광주여자대학교 교직원 연수와 워크숍을 순창군에서 진행하고 순창투어를 활성화하는 등 도농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고향사랑기부제와의 연계를 통해 생활 인구 증가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지속 가능한 교류를 통해 상생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순창군은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세미나실과 숙박시설 등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지방대학의 위기와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실행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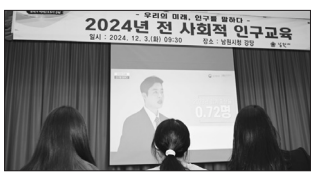
아울러, 군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광주여자대학교 교직원들에게 연수와 관광의 기회를 제공하며, 광주여자대학교는 교육 역량과 연구 인프라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선재 광주여자대학교 총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과 대학이 상호 협력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학의 교육 역량과 순창군의 풍부한 지역 자원을 연계해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광주여자대학교와의 협력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양 기관이 함께 지역 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공무원 대상 '전사회적 인구교육' 나서

남원시가 저출산 고령화 인구소멸 위험 속에 인구감소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감과 대응을 위해 지난 3일 남원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사회적 인구교육에 나섰다.



이번 교육에서는 '우리의 미래, 인구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인구감소가 가져오는 사회구조 변화와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영상 교육을 진행했으며, 최근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체인구의 50.7%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부모 세대의 '고향'이 아닌 청년세대에는 신개념의 행복을 줄 수 있는 고향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현실이다.

이에 시는 청년 및 공동체와 함께 지역만의 자원을 활용해 '남원'이 청년세대의 '제2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남원누리시민 확대와 함께 로컬브랜드 개발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남원시는 2021년도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 89개소에 해당하며, 최근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 최고등급인 '우수지역'으로 선정되어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 중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생활개선회, 5일 고추장 담그기·나눔 행사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생활개선회가 오는 5일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생활과학관에서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및 나눔 행사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행사는 17개 읍·면·동·직할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 생활개선회는 고추장 담그기에 앞서 식품 제조업 관련 위생교육을 진행하여 위생수칙과 안전 사항을 준수하며 진행할 예정이며, 고추장은 필요한 이웃들에 전달되어 훈훈한 온정을 나눌 예정이다.

남원시 생활개선회는 매년 고추장 담그기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담당자는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고추장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어 모두가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공중화장실 안전 관리 시설 설치 대상 지정

임실군이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안전관리 시설 설치 대상을 지정했다.

이번 조례는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일부개정 됐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관내 공중화장실 191개소 중 관광지·체육시설 등 기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총 52개소를 지정했다.

지정된 공중화장실은 내년도부터 경찰서 연계형 양방향 비상벨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와 범죄 피해에 조기 대응 시스템을 갖추어 피해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심 민 군수는 "비상벨과 같은 안전관리 시설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